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느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면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천지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만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다 떠나서 홀홀단신이 되어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이 육신의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가 어려워 굶어 죽겠구나하고 절체절명의 시간이 딱 왔을 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내게 병이 오면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물을 주어 채소를 키우면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채소가 잘 되고 성공이야.” 라고 하겠지만 햇빛과 비가 적당해야 농사가 잘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아 지하수까지 마르면 농사 못 짓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계속 오면 뿌리가 다 녹아내립니다.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햇빛과 비입니다. 그래야 풍년이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결정하지 못합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 내 부모와 내 얼굴, 키, 성품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똑딱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똑딱 딸 낳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께 돌아보면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걸 모르죠. 그런데 모르는 걸 가지고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모를 뿐이지, “그러

틀렸다.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날렸다고 욕하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늘 기다렸다. 돈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도 죄지만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같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사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 산다는 게 자꾸만 무너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을 결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갔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구요. 그냥 교회를 갔다가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통도사에 평생 다니셨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이죠. 불교대학도 다니고요. 그분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교회 오기 1년 전에 딸이 자살을 했대요. 평생 자식 잘 되라고 빌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아들도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 있어요. 부모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오셨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십니다. 나중에 그 아들도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 청년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신, 영혼, 마음, 분자, 세밀한 군 다 안 보입니다. 보여야 있고, 안 보이면 없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양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마음이 보이나요?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

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죄도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 살았던 것이 죄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귀신의 왕인 악한 사탄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이 땅을 떠나거든요.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떠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되어 우리 교회의 좋은 성도로 있는 분이 여러 명 됩니다. 귀신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마귀를 이기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당이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큰 굿을 하다가 망합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역사상 수십억의 인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써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서서 우리 죄를 감당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될 수 없는 악한 사탄에게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속죄 받았습시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고난 받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데 그 하나님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꼭 알고 가세요.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세요. 셋째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나? 여러분의 집의 자녀가 착하고 공부를 잘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낳아야 내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됩니다. **행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는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면 되나? 그럼 진짜 착한 거 맞나?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 거짓말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롬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듣고 믿으시면 좋겠지만 안 믿어지더라도 말씀을 좀 더 알아보자고 계속 들으시면 더 많이 깨달아질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축복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